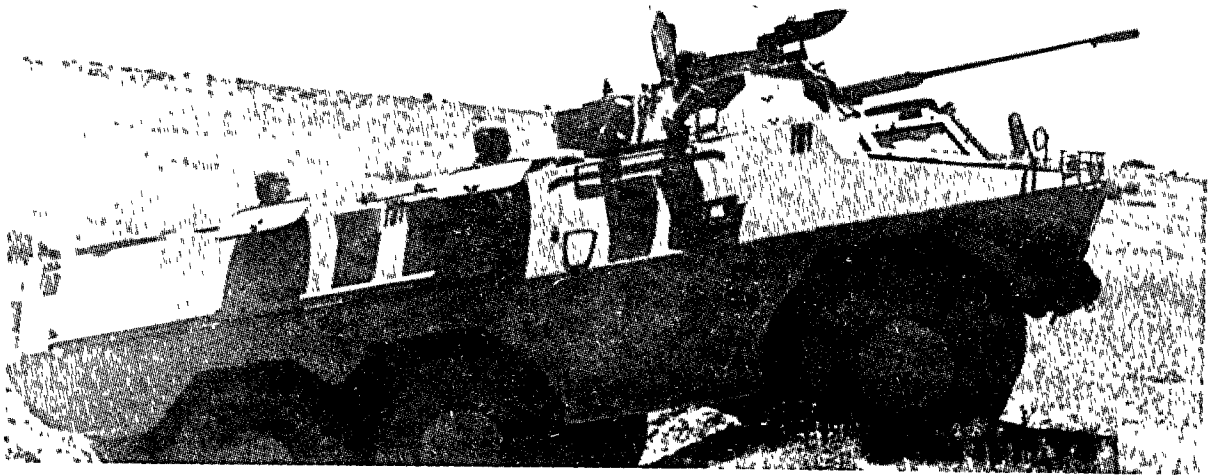


開發途上國의 防衛産業



〈그림 1〉 BOER裝甲車의 後繼裝甲車라고 일컫러질 RATEL(南아프리카)

過去 1970年代의 10餘年이 經過되는 동안 그 後半期의 特長을 든다면 世界武器市場에 있어서 前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武器生産者들이 出現한 點이라 하겠다.

괄목할만한 事實은 이들 새로운 武器取扱商들이 高度産業國家인 傳統的인 武器生産國들로부터 由來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小國이며 第三世界地域으로 알려진 國家에서 起因된 點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第三世界”라 함은 數年前까지 三個地域의 高度産業化 Block——即, 유럽과 北美地域, 소련과 社會主義國家地域, 그리고 濠洲와 日本地域——을 제외한 他地域國家라는 分類方法에 따른 것이며, 오늘날에 이르러 第三世界로 分類할 수 없는 國家인 南아프리카와 이스라엘 自由中國같은 아시아地域 國家들이 포함되어 있어 疑問의 餘地가 남아있는 것이다.

如何든 間에 편이상 아직까지도 中南美地域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地域을 일컬어 第三世界라 指稱하고 있으므로 本文에서는 便宜에 따라 區分된 이 地域들을 第三世界로 看做하고 여기에서 生産된 各種武器를 高찰해 보도록 한다.

通常 小國의 武器産業發達過程은 大部分 다음과 같은 經路를 따른다 하겠다.

最初段階는 輕火器의 免許生産(License 生産)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발전함에 따라 보다 중요한 武器를 生産하게 되었고 여기서 蓄積된 經驗과 能力을 바탕으로 탱크를 포함한 最新銳兵器를 生産하게 되었다.

따라서 第三世界地域國家 자신들이 武器를 自體生産할 수 있는 研究基盤을 構築하게 되는바 이러한 兵器들은 通常 간편하고 堅固하며 價格 또한 低廉하다 하겠다.

일부 國家에서는 國際的인 大兵器生産者의 設計를 研究檢討하여 自體需要에 충당키 위해서 製作販賣하게 된다. 아울러 市場開拓活動이 시

작되어 생산된 武器로 第三世界地域內 國家들을 대상으로 輸出하는 것이 목적이며, 마침내 이것은 世界的인 大規模 兵器生産者들에게 打撃을 주게 되었다.

第三世界 兵器生産者들의 販賣活動에는 다음과 같이 有利한 點을 들 수 있다.

即, 購買國들은 自國과 유사한 弱小國으로 부터 兵器를 購入할 경우 장차 이를 使用하는데 政治的인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思考는 西歐社會나 東歐社會의 武器生産者들이 생산된 武器를 販賣함에 있어 영향은 政治的인 目標로 해왔다는 데 있다. 이와같은 潛在的인 兵器市場을 확대해 나가는 成功的인 출발의 例와 特定國家에 대한 國際聯合(U.N.)인 武器禁輸措置등은 第三世界 地域國家 自身들이 武器를 生産하려고 하는데에 刺戟要素가 되고 있다.

現在로는 第三世界의 兵器市場이 계속적으로 增加하고 있으며, 地域內의 防産業體에 대한 好意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어 大體的으로 鼓舞的인 時期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중 가장 代表的인 國家와 그들의 計劃을 考察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 하겠다.

◇브라질

南美의 大國은 가장 活發하게 防産物資를 生産, 販賣하는 國家中의 하나이다.

現在 이락에 대해 約 1,000臺 가량의 裝甲車輛 販賣契約이 성립될 段階에 있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裝甲車輛과 戰術트럭의 販賣에서 裝甲車輛 ENGESA에 의해 획득한 名聲을 그 例로 言及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라틴아메리카諸國 가운데 최초로 基本兵器生産을 시작한 國家라 할 수 있다.

Brazil은 自國의 軍事力補強을 위해 Italy의 OTO-Melara 社와 提携하여 Brazil軍에서 필요로 하는 重裝甲車輛과 미사일生産을 첫段階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OTO-Brazil 社를 설립하였다.

이는 또한 Brazil로 하여금 外國去來處에 대해 보다 多樣化된 商品目錄을 제공할 수 있게한 것이다 防衛産業物資製造業體로 널리 알려진 Italy의 化工藥品會社인 SNIA社와 合作한 Brazil企業

體가 設立된바 있음을 든다면, 商品目錄多樣化의 意味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르헨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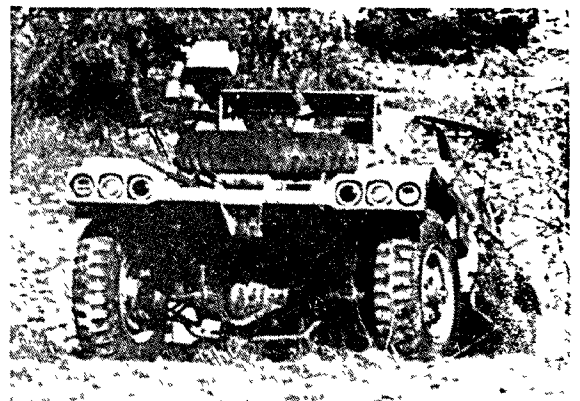
아르헨티나의 防産分野는 過去 Peron이 아르헨티나를 統治할 當時 이미 基盤을 構築하였으며, 주로 유럽地域에서 所要되는 資材를 免許生産, 공급하였다.

數次에 걸친 政治的인 大激變 이후에 樹立된 Videla 政府도 同一路線을 따를 것으로 豫測되며, 아르헨티나가 防衛産業分野에 대한 첫 試圖는 TAM戰車의 生産이었으며, 이 戰車는 西獨의 Thyssen이 原型이라 하겠다.

이 戰車는 當初 아르헨티나軍의 將來 標準裝甲車輛으로 豫定되었던 바 있으나 最近에 이르러 아르헨티나 國防會議에서 45乃至 50ton級의 戰車를 自體生産하거나 免許生産하려고 한다는 消息이 전해져 약간 不透明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새로운 裝甲車輛을 필요로 하는 파키스탄에 이미 TAM戰車를 販賣한바 있는 아르헨티나 政府의 防衛産業에 대한 성공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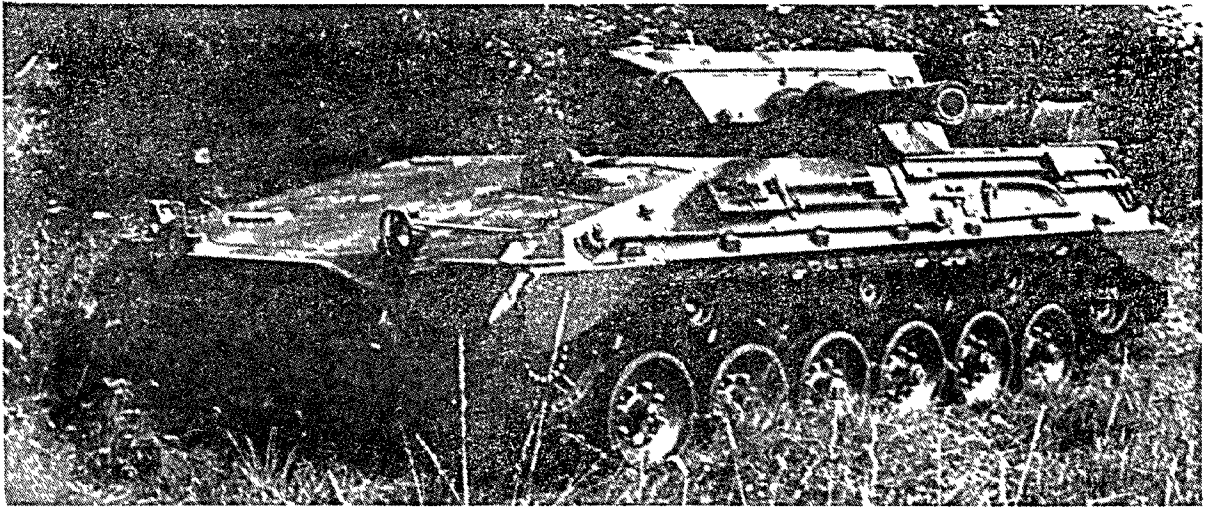
아르헨티나政府는 自國軍이 새로운 戰車를 裝備하게 된다는 것을 事前에 外國市場에 알려주었으며 TAM戰車의 生産量을 증가시켜 單價를 낮추는 동시에 外貨獲得에 迫車를 加하고 있다.



〈그림 2〉 RAM V-1戰車(이스라엘)

◇남아프리카

防産分野에 있어서 潛在能力을 보유하고 있는 남아프리카는 武器禁輸措置가 아무런 影響이 없



〈그림 3〉 서독의 THYSSEN 戰車

는 代表的인 例로서 潛在能力 뿐 아니라 高度로 産業化된 人的資源을 충분히 保有하고 있는 것이다.

10년내지 15년에 걸쳐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諮問과 협조를 받아 왔던 南아프리카의 技術陣은 自國의 需要를 충족하는데 要求되는 兵器生産計劃을 成功的으로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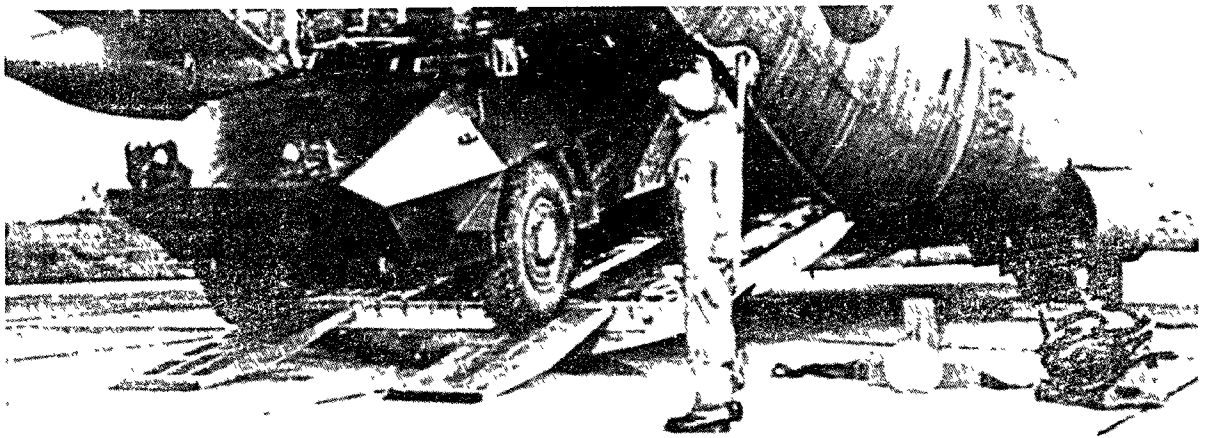
南아프리카가 購入하려는 械器類는 武器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戰爭目的에 사용될 것으로 열려하여 販賣를 拒否하여 왔으나 이것은 公式的인 面에 지나지 않았고 이 面에서는 業者間에 異色的인 賣買商談과 事業商談이 盛行되었다.

南아프리카 企業人들은 유럽兵器工場으로 부터 Pretoria市까지 密搬入함을 默認토록 禁輸加入

者들을 說得, 買收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도움도 받아 왔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裝甲車輛을 비롯해서 大口徑砲, 小火器, 船舶 및 헬리콥터등 其他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전부 生産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密輸組織網은 南아프리카가 自體所要 武器를 生産하는데만 이용할 뿐 아니라 Rhodesia 나 其他 國內계 隣라들르 부터 교통을 받고 있는 隣接國家에 대하여 生産된 무기를 輸出할 수 있도록 하였다. 兵器禁輸措置의 결과는 南아프리카의 自體防衛産業을 外國의 支援없이도 충분히 번창하도록 하였다.

兵器禁輸措置란 꼭 壓力의 道具로서가 아니고 大國들의 진정한 目的, 즉 政治的 目的등을 은폐하기 위한 體面維持에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



〈그림 4〉 C-130 航空機

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事實上 이스라엘은 高度開發國家에 속하므로 本文에서는 言及치 않으려 했으나 地理的으로 關聯되므로 간단하게 披瀝코져 한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存立을 美國의 保護에 依存하도록 오랫동안 壓力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自體防衛産業을 일으키기 위해 많은 努力을 기울여 現在에 이르러서 英國의 防衛産業에 대해 威脅을 줄 정도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武器들은 自體製作完成品이며, 實際로 필요한 武器라면 무엇이든 스스로 製作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직껏 美國으로부터 構入하는 資材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새로운 技術을 배우거나 혹은 政治的인 이유에 起因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防衛産業은 自國의 安전을 維持하기 위하여 「防衛産業의 발달이 必須的이라는 概念」이라는 口號가 巨大한 발전의 潛在力이 되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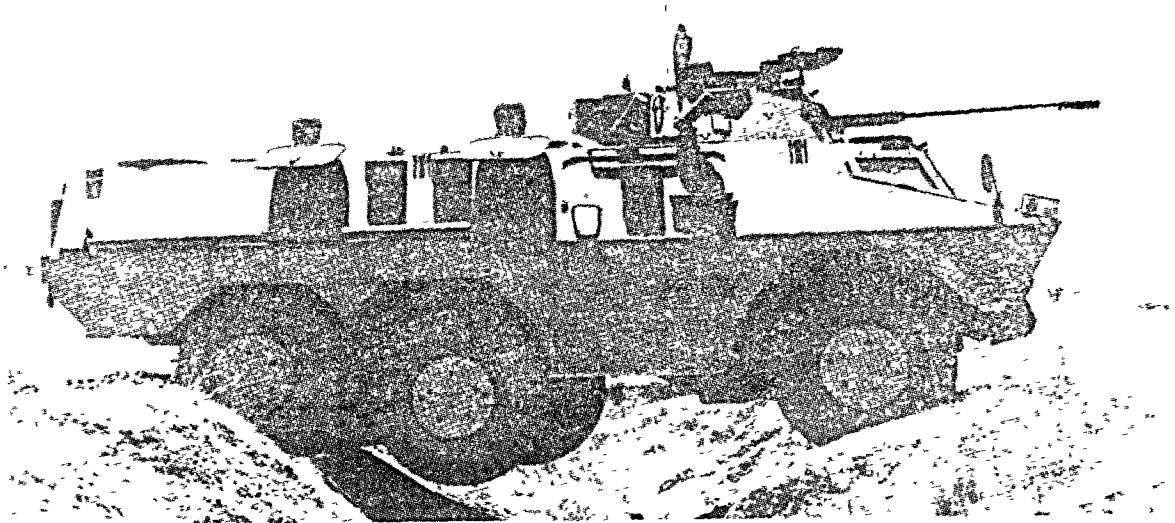
舊型 혹은 中古車輛 및 地上裝備部分의 資材

들을 改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MERKAVA 戰車를 自體設計하였던바 이는 진보된 技術로서 製作된 것은 아니나 보다 輕量化된 戰車를 요구하는 戰術理論을 防護 및 費用面에서 예상을 뒤엎는 意味를 나타낸 것이다.

生存을 위한 戰爭과 歐美地域으로 부터의 廣範圍한 技術 및 財政支援을 바탕으로 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의 要求에 적절한 兵器를 多量으로 生産하여 왔으며, 동시에 그것은 輸出部門에서도 成功할 수 있는 潛在性을 所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美國대로의 立場에서 볼때 對外輸出에 支障을 招來하는 이스라엘의 兵器市場進出을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防衛産業物資를 필요로 하는 顧客은 美國의 防衛物資를 購入하고 있는 顧客이라는 點에서 아무리 美國이 이스라엘을 꼭 도와야 할 立場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無謀하다고 할 무례한 競爭者, 卽 禁輸令이 宣布된 國家에 대해 生産된 武器를 販賣中인 이스라엘을 經濟的인 競爭者로 간는다는 것은 困難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그림 5〉 RATEL 裝甲車

◇自由中國

自由中國은 長期間에 걸쳐 美國으로부터 武

器供給 및 支援을 받아 오던중 Nixon 大統領에 의해 추진된 美國과 中共의 政治的 和解무드에 따라 自國自體防衛를 위해 數種의 武器類를 製

作하는 동시에 供給先을 多邊化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理由는 自由中國軍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如何間에 심지어 가벼운 軍用色選擇에 이르기까지 美國의 강력한 統制를 받아 왔기 때문에 自由中國의 防衛産業과 軍의 方向轉換을 도울 수 있는 相對方을 물색하던 結果 마침내 이스라엘과 손을 잡게 되었다.

이스라엘과의 細部的인 協定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도 거의 없거니와 알려져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事項에 대해서는 일체 緘口하고 있는 實情이라 하겠다.

如何든 自由中國은 臺北市에서 舉行되었던 軍閱兵隊列에서 수종의 海岸防禦미사일의 原型을 선보였던바 이 Hsiung Feng미사일과 이스라엘製品인 Gabriel미사일의 類似性은 그 外貌만 보아도 얼마나 密接한 관계가 있는가 알수 있었다.

反面 美國의 對自由中國 外交政策의 可變性和 不安定함에 따라 自由中國은 對外關係面에서 初期의 對美密着態度를 초월하여 獨自的인 自主國方の 길을 追求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現象은 自由中國 國民의 本土에 대한 두려움과 50年代의 戰雲에 대한 記憶이 自由中

國運命에 대한 警告로 작용되어 이를 忘却하기에는 너무나 生生하게 남아있는 때문이라 하겠다.

本文에서 우리는 開發途上國의 새로운 防衛産業의 成長에 대하여 가장 代表的인 事例만을 檢討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兵器産業推進現象은 産業大國으로부터 分離되어 차별받는 高地를 넘으려는 兵器禁輸國家의 産業化過程에도 波及되어질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産業大國에 從屬되어 있다는 가장 明白한 表示는 그들이 自體防衛와 安保를 위한 物資를 이들 産業大國으로부터 購買하고 있다는 事實이므로 産業化된 모든 나라는 自身들의 防衛를 위하여 필요한 武器를 生産하려 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1970年代 後半기에 나타난 이러한 傾向은 도깨비 불처럼 瞬間에 불붙다 瞬間에 꺼져버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平和論者와 絕對車縮主唱者의 呼訴와 必死的인 絶叫에도 不拘하고 앞으로 점점더 發展하게 될 始發點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하겠다.

GROUND DEFENCE INTERNATIONAL No 58
11/1979

<<株>>디·케이 인터나쇼날, 次長 金武一 譯

